

지역 매아리

고창군 착한가격업소 모임  
따뜻한 이웃사랑 '앞장'

고창군 착한가격업소 모임(회장 이선덕·미향 대표) 회원 18명이 고창 아모스 요일원을 방문해 50만원 상당의 양말을 기탁하고, 고창여자고등학교를 찾아 학생들에게 고창사랑상품권 30만원을 전달해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착한가격업소 회원들은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발한 활동하고 있다. 지역 내 고아원이나 독거노인 등 취약 계층에게 무료 식사 제공,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갑장 봉사 등 자발적인 봉사로 고창사랑에 앞장서고 있다.

고창군 착한가격업소 모임 이선덕 회장은 "착한가격업소 회원들 모두 기쁜 마음으로 작은 정성을 모아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이웃을 배려하고 나눔을 적극 실천하여 군민과 고객에게 사랑 받는 착한 업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착한가격업소는 소비자들이 안정을 위해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청결과 친절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로 행정안전부와 고창군이 지정(31개소), 관리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립중앙도서관, 21일

풍성한 책 축제 '달빛소풍' 개최

독서의 계절 9월에 지역 주민들이 책을 매개로 소통할 수 있는 문화행사가 열린다.

정읍시립중앙도서관은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밤 9시까지 중앙도서관과 상동 시민공원 일원에서 책 축제 달빛소풍을 개최한다. 이번 책 축제에는 정읍시립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문화강좌 수강생들이 시민의 문화 향유와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참여한다.

독서의 달을 맞아 시민이 함께 만드는 참여형 축제로서 새로운 독자 트렌드를 반영한 행사 운영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이번 책 축제는 특별한 체험과 이벤트를 통해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관객 참여형 뮤지컬 '공룡 야옹'과 풍산공원이 이어지고 진중권 작가의 '내가 추천하는 책'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과 문화를 노래하는 감성 밴드 '서늘'의 북 콘서트도 펼쳐진다.

유진섭 시장은 "시원한 가을은 평소 읽고 싶었던 책을 여유롭게 읽고 즐기기에 좋은 계절"이라며 "상동 시민공원에 퍼지는 은은한 달빛과 조명, 잔잔한 음악과 강연으로 가을밤의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정읍시청 도서관사업소 중앙도서관팀(☎063-539-6435)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 "도서관서 작가의 꿈 키워요"

## 정읍시, 도서관 상주 작가 지원사업 최종 선정

정읍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한국문화예술포럼에서 주최한 '2019년 도서관 상주 작가 지원사업'에 공모해 최종 선정됐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말 본 사업에 최종 선정돼 정읍시립중앙도서관에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이에 시는 지난달 29일 상주 작가 채용 절차를 통해 현재 작가인 이라야 작가를 채용했다.

이로써 시 중앙도서관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7개월 동안 이라야 작가와 함께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이라야 작가는 정읍 지역 작가로서 정읍도서관에서 진행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작가의 꿈을 키웠다.

이 작가는 '가짜 정우 진짜 정우', '울드보이 선생님'과 지난해 정읍시 한편의 책 대표 도서인 '비확인 바 이러스' 등의 작품으로 창작 작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시는 이라야 작가와 '나도 작가되기'를 주제로 성인 통화책 창작·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화 이야기 스토리텔링·함께 읽는 고전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또, 지역과 관련된 역사, 인물 등의 탐구를 문화적 요소와 결합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시 도서관사업소 관계자는 "도서관 상주작가 사업을 통해 작가와 독자 간의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하게 됐다"며 "문화 독자층 확대를 통해 문화 플랫폼 역할을 해내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 부안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 건립 국비 45억원 확보

부안군 농업기술센터는 과학영농시설 건립비 90억원 중 국비 45억원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으로 확보해 순항 중이라고 밝혔다.



부안군 농업기술센터가 과학영농시설 건립비 90억원 중 국비 45억원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으로 확보했다.

이번에 건립되는 과학영농시설은 부지면적 8354㎡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600㎡ 규모다.

과학영농시설 건립은 농업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연구실험분석실, 스마트팜교육장, 농산물가공실, 정보화교육장 등 다양한 시설로 조성된다.

부안군 농업기술센터는 과학영농시설 신축으로 증가하는 행정수요 충족 및 군민의 소통·정보교환 장소 제공 등 농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친화형 개방형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했다.

지와 새만금 관광시대 증추도시 부안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관광 부안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 농업기술센터는 1970~80년대 건축된 노후 건물로 시설이 낡고 건물이 여러 동으로 나뉘어져

있어 농업기술센터를 찾는 농업인 및 내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며 연중 각종 교육 및 행사가 많아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도로변 주차 등 교통사고 위험 등이 상존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부안=김석진 기자

## 고창군, 올해 농식품 명인에 라희술씨 선정

### 간수 뺀 천일염 황토용기에 담아 구운 알칼리성 건강소금 만들어



고창군의 올해 농식품 명인에 명품 황토소금을 만들어 오고 있는 라희술 씨가 선정됐다.

16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고창군농식품 명인 심사위원회에서 염류 분야 최고 권위자인 라희술(69)씨를 고창군 농식품 명인으로 최종 선정했다.

라희술 명인은 6대째 도자기를 만들어 오고 있는 도공이다. 고창의

품질 좋은 황토를 선별해 모양을 만들어 1000도의 고온으로 굽는다. 이어 고창 지역 염전에서 5월에 채취한 소금을 간수를 제거한 후 황토 용기에 담아 800도의 고온으로 12~20시간 가마에 구워서 명품소금을 만들어 오고 있다.

이렇게 만든 소금은 짠맛과 쓴맛이 덜하여 부드럽고 담백한 맛이 난다. 특히 굽는 과정에서 천일염에 함유된 비소·납·카드뮴·수은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제거되고 미세입자 풍부한 알칼리성 건강 소금이 되면서 전국에서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현장평가와 고창군 명인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우석대학교 박수진 교수는 "특히 지역농산물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명인들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정된 명인에게는 명인 인증서와 인증패 교부뿐 아니라, 고창군 농식품 명인 현관증정, 마케팅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선정된 라희술 명인이 고창을 대표하는 얼굴인 만큼 앞으로 고창군 홍보와 농식품 브랜드 향상을 위해 적극 활동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시작된 '고창군 농식품 명인'에는 박영주(염류), 안문규(식초류), 김효심(장류)씨 등이 선정됐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 선운산 상사화.

## 취향 따라 떠나는 고창 여행

### 꽃무릇·메밀꽃·문화재 야행·모양성제 등 다채

뛰어난 자연경관과 다양한 문화관광명소를 자랑하는 고창군이 추석연휴가 끝나고 본격적인 가을여행주간 시즌이 시작됨에 따라 관광객 유혹에 나섰다.

'여행주간'은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전국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국내 여행 특별 주간으로, 올해 가을 여행주간은 29일까지다.

고창군은 이번 가을 여행주간에 남녀노소 취향을 만족시킬 다양한 테마를 마련했다.

선선한 가을밤의 정취를 즐기는 '고창문화재 야행'이 20일부터 22일까지 펼쳐지고, 이뤄질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선운산 상사화'가 이번주부터 만개한다.

또 고창하원농장 메밀꽃과 전라도 민들이 축성한 자연석 성곽 고창을 성에서 합류할 수 있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민속축제인 '모양성제'가 다음달 3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다.

제46회 고창모양성제는 고창읍성의 축성정신을 기리며 군민의 화합과 우리민족 고유의 전통문화 예술인 강강술래, 모양성 답성놀이, 축성출성식, 축성참여 고을기 올림, 병영문화제연과 체험, 달빛극장 프로그램 등 풍성한 공연을 펼친다.

고창군은 가을 여행주간 특화 프로그램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로 관광객 유치와 지속가능한 관광상품을 운영한다. 여기에 풍천장어와 제철을 맞춘 구이조 전어회, 중하구이 등 먹거리와 연계한 관광 콘텐츠 확보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창군 관광진흥팀 김동일 팀장은 "고창은 뛰어난 자연경관과 다양한 역사문화유적지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최고의 여행지로 손색이 없다"며 "이번 가을 여행주간에는 한번도 찾수도 고창에서 보다 색다르고 특별한 여행을 즐겨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정읍시 내장상동, 태풍 피해농가 일손돕기 나서

정읍시 내장상동주민센터 직원들은 최근 제13호 태풍 '링링'이 불고 온 강풍으로 피해를 입은 봉래마을 사과 농장을 방문해 재해복구 일손돕기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날 주민센터 직원 15명은 긴급복구를 위해 쓰러진 과수 세우기와 보조 지지 설치, 낙과 줍기 등 봉사활동으로 구슬땀을 흘렸다.

이번 태풍은 강한 바람으로 과수 낙과 등의 피해가 발생해 가을철 수확을 앞둔 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고령화와 부녀화로 농촌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떨어진 과수를 그대

로 두면 썩어 병충해가 전염되기 때문에 조속한 피해 복구가 요구됐다.

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요청에 따라 신속한 낙과 수거를 위한 피해 농가의 일손을 도왔다.

피해 농가는 "추석을 앞두고 태풍피해를 입어 막대한 마음이었는데 내장상동 주민센터 직원들의 도움으로 힘이 난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내장상동 최규관 동장은 "직접 피해 현장에서 떨어진 과일을 보니 가슴이 아프다"며 "이번 일손돕기 봉사활동이 피해지역 농민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청와대 만찬주! 부안간삼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간삼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간삼 뽕주 Premium Ohdi Wine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